

1	㉓	2	㉕	3	㉔	4	㉓	5	㉕
6	㉔	7	㉔	8	㉕	9	㉑	10	㉕
11	㉓	12	㉔	13	㉑	14	㉕	15	㉕
16	㉕	17	㉔	18	㉓	19	㉕	20	㉔
21	㉓	22	㉑	23	㉔	24	㉔	25	㉔
26	㉔	27	㉕	28	㉕	29	㉔	30	㉔
31	㉕	32	㉔	33	㉓	34	㉔		

### [1-3] 독자와 저자의 의사소통

본 문항은 22학년도 4월 고3 경기도 교육청 독서론 문항입니다.

#### 1. ㉓

**정답** 독자가 독서 목적에 따라 자신의 독서 계획을 점검하며 읽는 방식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3문단에서 독자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응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2문단에서 독자는 ‘글을 읽으며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3문단에서 독자는 ‘독서를 하며 새로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3문단에서 독자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2. ㉕

**정답** ㉔에서는 옛날에 이름이 없어 고증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라고 하였을 뿐 저자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내용을 숨긴 것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㉑에서는 저자가 어족의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물다는 독자의 사전지식을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㉔에서는 저자가 사물에 정통한 자가 마땅히 어족의 이름을 살피야 한다는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㉔에서는 저자가 독자에게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㉔에서는 저자가 후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참고할 만한 자료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3. ㉔

**정답** 3문단에서 독자는 저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배경지식에 따라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학생들이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독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글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한 것은 적절하다.

### [4-9] 음악과 미술의 조화

#### 4. ㉓

**정답** (가)에서는 회화에 음악이 미치는 영향을 ‘공감각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회화에 음악이 미치는 영향을 19, 20세기 작가들의 예시를 통해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5. ㉕

**정답** (나)의 3문단에 따르면 20세기 회화의 흐름 속에서 음악과 예술의 상호작용은 기존의 미적 의식을 능동적으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회화 양식에서 탈피한 것이다.

- ①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음악과 미술의 조화와 융합을 시도한 기원은 이집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람세스 3세의 무덤 벽화’가 그 예시이다.
-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19세기 예술가들은 미술의 색채와 음악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미술의 색채에 음악을 접목시키려 하였다.
-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몬드리안은 이전의 단순성에서 탈피해 움직임을 더욱 강조하며 음악적 운율을 담아내려고 하였다.
-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칸딘스키는 음악적 순수성의 시각화를 위해 완전 추상회화 제작을 시도하여 창조적인 미술 세계를 확립하려 하였다.

#### 6. ㉔

**정답** (가)의 3문단에 따르면 ‘공감각 현상’이란 미술과 음악이 조화와 융합을 이루는 것이며, 화가가 음악을 듣거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강렬한 색채 이미지를 따라 자신의 그림을 수정한 것은 미술과 음악의 조화와 융합과는 관련이 없다.

①, ③, ④, ⑤ 모두 미술과 음악의 조화와 융합을 보여준다.

### 7. ④

**정답** <보기>의 회화에 대한 관점은 회화에서 심미적인 기능보다는 기록적 기능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 과거 음악과 미술의 조화와 융합을 시도한 사례이며, ㉡은 미술과 음악의 접목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기>에 나타난 회화의 관점으로 ㉠에 대한 ㉡의 관점을 비판한다면 회화의 '심미적 기능'이나 '미술과의 조화'보다 '기록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비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출제의도** ②번 선택지의 뒷 부분인 '회화가 미술을 동경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만 확인한다면 틀리도록 유도했다. 앞 부분인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이 <보기>의 관점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① <보기>는 회화의 '심미적 기능'보다 '기록적 기능'을 중시하며, '사진'과 비교한 것은 ㉠에 대해 ㉡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의 관점이다.
- ② <보기>에서 회화가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보기>에 따르면 회화의 가장 뚜렷한 기능은 '기록적 기능'이다.
- ⑤ 회화가 음악을 동경한 것은 ㉡의 관점이다.

### 8. ⑤

**정답** <보기>에서 '투스 원근법'은 음악의 '순정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회화 기법으로 미술에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에서 설명은 회화의 '음악적 조형언어'에 해당한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음악적 조형언어'는 음악의 정서라는 소재의 흐름에 질서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며, 소리를 매개로 주관적인 정서를 객관화하고 공감의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보기>의 '투스 원근법' 또한 주관적인 정서를 객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제의도** ②번 선택지에서 학생들이 잘못 판단하도록 구성했다. 가볍게 숫자만 확인한다면 적절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보기>와 선택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 ① <보기>에서 '음악적 조형언어'는 '투스 원근법'이 해당된다. '순정률'은 피타고라스가 만든 음악적 규칙이다.
- ② <보기>에 따르면 1/8로 감쇠되는 것은 소리이다. 거리는  $ab$ 로 고정되며 변하지 않는다.
- ③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음악적 조형언어를 통해 관객들은 '청각적 환영'을 느낀다고 하였다. <보기>에 따르면 '투스 원근법'은 '음악적 조형언어'에 해당된다.
- ④ '투스 원근법'에서 한 가지 색상만 사용한 것은 입체감과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9. ①

**정답** ㉠의 '가지다'는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다. ①번 선택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도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 [10~14] 중심지 이론

### 10. ⑤

**정답** 배후지, 최소 요구치 등의 개념으로 중심지이론을 설명하며, 소비자의 합리성, 3차 산업에 국한된 모습 등을 바탕으로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중심지이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상반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 11. ③

**정답** 3문단에 따르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대도달 범위가 최소요구치보다 커야한다.

- ②, ④ 2문단에 따르면 도시의 중심성이 커지면 그 도시 배후지의 규모도 커진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공간적 차원에서 최소요구치는 배후지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성이 커지면 중심지의 최소요구치는 늘어난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중심지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 12. ④

**정답** <보기>에 따르면 A는 자신의 최대도달범위가 최소요구치보다 작아 특정 지점에 상설점포를 경영할 수 없어 필요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시장들을 순회한다. 즉 A가 상설점포를 경영하려면 자신의 최대도달범위가 최소요구치보다 커져야 한다. A가 시장을 순회하면서 생기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최대도달범위는 작아지게 된다.

- ② 한 지역의 인구 규모가 커지거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최소요구치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A의 최대도달범위가 넘어야 하는 최소요구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A는 더 적게 이동할 것이다.
- ③ A는 5일을 주기로 각 시장을 순회하는데, 이는 최대도달범위가 최소요구치보다 작기 때문이다.
- ⑤ A의 최대도달범위가 증가한다면 A는 더 적게 순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늘어나게 된다.

### 13. ①

**정답**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이 발달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감소하고 최대도달범위는 증가한다. 따라서  $t_0$ 에서는 최소요구치가 최대도달범위보다 커야하며,  $t_1$ 에서는 최대도달범위가 최소요구치보다 커야한다. 또한 최소요구치는  $t_0$ 에 비해  $t_1$ 에서 줄어들어야 하며, 최대도달범위는  $t_0$ 에 비해  $t_1$ 에서 늘어나야 한다.

**출제의도** 지문에 설명된 최대도달범위와 최소 요구치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문제이다. 출제방식은 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오버슈팅]의 <보기> 문항을 참고하였다.

### 14. ⑤

**정답** '능가'란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섬.'을 뜻한다.

### [15-17]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 15. ⑤

**정답** 건식 저장 방식은 습식 저장 방식과 달리 별도의 용기에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한다.

- ① 사용 후 핵연료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이 해당된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건식 저장 방식은 습식 저장소 내에서 일정기간 저장하여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 후 건조시켜 저장하는 방식이다. 즉 핵연료를 건조시켜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낮춘 후 건조시키는 과정을 따른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건식 저장 방식은 금속용기를 사용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며, 습식 저장 방식은 부지 소요 면적이 작아 저장 효율이 좋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건식 저장 방식은 습식 저장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으며,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입증되었다.

### 16. ⑤

**정답** 음극에서는 우라늄 이온의 환원 반응만 진행된다.

- ① 첫 번째 용해는 사용 후 핵연료를 용해하여 산화 우라늄을 얻는 과정이며, 두 번째 용해는 염화물을 용해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용융염에서는 최소 두 번의 용해가 발생한다.
- ②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하기 위해서는 우선 500°C 이상의 고온의 용융염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용해하여야 한다.
- ③ 양극(+)에서는 염소이온의 산화반응에 의하여 염소가 생성됨과 동시에 우라늄 및 기타 핵물질과 반응하여 이들을 염화물로 전환시킨다.
- ④ 음극에서는 우라늄 이온의 환원반응을 통해 우라늄 금속만이 모이게 된다.

### 17. ④

**정답** 선택적으로 핵물질을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의 질산 수용액과 같은 것은 ㉠의 음극이다.

- ① ㉠은 건식 처리 기술이며, ㉡은 수용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습식 처리 기술에 해당한다.
- ② ㉠은 우라늄을, ㉡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선택적으로 회수한다.
- ③ ㉠에서 전해반응은 우라늄을 선택적으로 분리한다. ㉡의 TBP 용액 또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 ⑤ <보기>에 따르면 ㉡은 고순도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로의 악용 가능성이 ㉠보다 높다.

### [18-21] 「소리의 빛」

18. ③

**정답** ‘오라비’는 ‘여자’에게 화를 내지 않았으며, ‘오라비’와 ‘여자’가 자매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다.

- ② ‘사내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끓는 태양별을 머리 위에 견디고 있는 듯이 얼굴을 심히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오라비가 싫은 짓을 참아가면서도 의붓아비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그걸 자네 오라비도 알았을까. 그 오라비한테도 자네가 이미 오라비를 그토록 알아보고 있는 눈치를 말이네.” “소리가 어우러져 나가면서 오라버니도 죽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⑤

**정답** ㉔은 ‘천 씨’가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를 이해한 모습이다. ‘틈을 주지않고 물어대던 사내’는 ‘오라비’가 아닌 ‘천 씨’를 뜻한다.

**출제의도** 지문에서 ‘오라비’와 ‘천 씨’를 모두 ‘사내’로 지칭하며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다. 소설의 상황에 맞게 지칭된 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 ④

**정답** ‘오라비’에게 ㉔은 소리를 찾기 위해 마음이 지니고 있는 고통스러운 동시에 소중한 존재이다. 또한 어머니를 죽게 만든 소리꾼 사내에 대한 증오도 함께 드러나는데, 이러한 모습이 ㉒로 나타난다. ‘오라빈 그걸 무슨 헛덩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 라요.’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자’는 ‘오라비’의 의도와 상관없이 ㉔를 ㉒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① 오라비는 ㉔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다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 ②, ③ ‘여자’가 ‘오라버닌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는지 모르지만’으로 미루어 볼 때, ‘오라비’는 자신의 ㉒를 모르고 있다. 따라서 ‘오라비’가 ㉔를 ‘여자’에게 말한 것은 ㉒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볼 수 없다.
- ⑤ ㉒가 ㉔로 변하는 과정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21. ③

**정답** ‘노인네’는 ‘오라비’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네가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치게 목청을 돋워대’는 것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① ‘오라비’가 결국 ‘여자’에게서 떠나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지만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 소리에 끌리는’이라고 말한 것은 <보기>에 따라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② ‘여자’와 ‘오라비’ 모두 서로 남매사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오라비’는 ‘노인네’에게 원한을 갚으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도망치는데, 이는 <보기>에 따르면 자신이 당장 이를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무시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오라비가 ‘말도 없이 문을 나갔’던 것은 ‘여자’와 서로 남매인걸 눈치채고 그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서이며, ‘여자’가 ‘오라버닌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는지 모르지만’이라고 말 한 것으로 볼 때 ‘오라비’는 자신의 살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2-27] 「농부의 집에 쓰다」, 「한거십팔곡」, 「봄」

22. ①

**정답** 화자는 농촌에서 아침 햇살, 봉어 등을 보며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서 과자가 과거를 직시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속세와 자연을 고민하는 등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확인할 수 있다.
- ③ 글쓴이는 ‘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으며,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가)에서는 ‘벼잎’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화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반면 (나)에서 화자의 태도는 속세와 자연을 고민하는 모습에서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또한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표현 자체도 확인할 수 없다.
- ⑤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 모두 외부와의 단절을 바탕으로 자아 탐색을 하는 것은 아니다.

### 23. ④

**정답** <보기>에 따르면 (다)에서 ‘봄’은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의 봄, 희망찬 앞날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의 봄을 나타낸다. ‘서쪽 가지’에 ‘봄이 울리 없다.’는 것은 한 등결에서 한 가지는 ‘생의 의지’를 이어갔지만 다른 가지는 그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의 모습을 보여준다. 청년과 노년의 대비하는 모습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물론 (다)에서 글쓴이는 ‘청년의 봄’에 비해 ‘노년의 봄’이 가지는 의미를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서쪽 가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출제의도** <보기>를 ‘동쪽 가지’와 ‘서쪽 가지’가 마치 각각 청년과 노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게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청년과 노년의 대비, 노년의 시선과 같은 어구들도 모두 (다)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학생들이 헛갈리도록 유도하였다. 다만 다른 선택지들을 상당히 무난하게 구성하여 정답을 보다 깊게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 24. ④

**정답** [D]에 나타난 화자의 여유로운 모습은 [C]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화자는 속세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이러한 갈등을 [C]에서 잠시 잊은 결과 [D]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출제의도**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대문 영역에서 각 작품의 의미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단순히 작품의 정서와 표현법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작품의 흐름과 의미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유형으로 보인다.

- ① 화자는 공명을 이루고자 하지만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에서 시간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어려운 모습이 나타난다.
- ② [A]의 속세에서 공명을 이루지 못한 모습은 [B]에서 속세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으로 심화된다.
- ③ 화자는 [B]에서 속세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C]에서 ‘세사(世事) 잊어 두고’에서 알 수 있듯이 잠시 미루어 두었다.
- ⑤ [E]에서 화자는 [A]에서 나타난 속세를 중시하는 모습과, [D]에서 나타난 자연을 중시하는 모습이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텐들 어떠리’라며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 25. ②

**정답** ㉠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세월이 빠르게 흘러도 이를 개의치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글쓴이는 지나간 봄에 앞으로 들어나는 봄이 가지는 가치를 말하고 있다.

- ① ㉠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지나간 세월에 대하여 달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아니라 지나간 세월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기에 낙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 화자는 늙어서도 봄의 가치를 느끼고 있어 자신의 상황을 걱정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은 자연에서 생활하는 화자의 일상적 삶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에서 글쓴이가 인간의 유한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은 화자가 속세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찰한 결과이다. 반면 ㉡에서 글쓴이는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라며 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26. ④

**정답** 글쓴이는 이 작품에서 겨울을 이겨 내고 파릇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 ‘동쪽 가지’를 예찬하며 같은 나무 한 등결인데도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다고 말한다.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를 가진 ‘동쪽 가지’는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했지만, ‘서쪽 가지’는 눈보라 추운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해 죽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글쓴이가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은 ‘과거’라는 시간 자체이지 ‘늙은이의 봄’만을 한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② 글쓴이는 봄을 바라보며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③ 글쓴이가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청춘 시절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두에서 젊은이의 봄은 흘겁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겹겹의 봄이라고 말하며 노년의 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⑤ (다)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27. ⑤

**정답**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은 ‘나아가면 임금 섬겨 백성에 은덕 미치고 들어오면 달빛 아래 고기 낚고 밭을 가네.’라는 뜻으로 화자의 갈등이 나타난 것이 아닌 유교적 가치관을 뜻한다. 또한 속세와 자연 속에서의 화자의 갈등은 이러한 갈등은 ‘진세 일념이 열음 녹듯 한다’에서 해소된다.

- ① ‘공명’은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이라는 뜻으로 화자가 속세에서 공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결국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현실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② 속세에서 공명을 못 이뤄도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은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에서 화자가 속세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결국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선택한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28-31] 「운영전」

28. ①

**정답** ‘저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에서 운영이 자신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제의도** 고전산문에서의 시점은 일반적으로 3인칭으로 전개된다. 「운영전」에서도 ‘대군’, ‘자란’ 등 등장인물들이 제시되어 3인칭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운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29. ②

**정답** 옥녀는 운영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30. ⑤

**정답** 운영은 [A]에서 대군이 자신을 의심하자 죽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B]에서는 [A]에서 대군의 의심을 받고도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고 있다.

- ① [B]에서 운영은 부모님을 떠올리지 않는다.

②, ③, ④ [A]에서 운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31. ⑤

**정답** <보기>에 따르면 전형성에서 벗어난 궁녀들은 인간 본연의 감정과 가치 등을 강조하며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운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지 인간 본연의 감정과 가치 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또한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운영전」의 궁녀들은 당대의 궁녀들과는 달리 인간 본연의 감정과 가치를 강조해 전형성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
- ③ ‘주군은 어찌하여 운영에게만 유독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는 인간 본연의 감정과 가치 등을 강조하며 한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보기>에 따르면 ‘수성궁’은 절대권력이 지배하는 특수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뜻’이 금지된 것은 궁녀들의 인간 본연의 감정과 가치가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2-34] 「수철리」, 「하관」

32. ②

**정답** (가)에서 화자는 산비탈부터 동생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모습을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시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눈’ 등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은 등장하지만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며, 화자의 인식 또한 변하지 않는다.
- ④ 화자는 시선을 이동하며 여러 대상을 묘사하고 있지만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거리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자연물을 의인화하는 표현은 찾을 수 있지만, 화자가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다.

33. ③

**정답** (나)의 화자는 동생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다. 따라서 죽은 사람과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은 화자의 꿈에 나타난 동생의 소리다.
- ⑤ 동생은 화자의 목소리가 미치지 못하는 세상에 있지만, ‘다만 여기는’에서 화자는 열매가 떨어지면 소리가 나는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②

**정답** <보기>에 따르면 문학 작품의 감상자는 죽음이 가진 비가역적인 특징 때문에 직접 느끼기 어려운 죽음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죽음을 내면화하여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②번 선택지에서 자아 성찰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출제의도** <보기>에 나온 설명을 반대로 섞어 마치 적절한 선택지처럼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나)에서 ‘네 음성을 / 나만 듣는’을 통해 느끼기 힘든 화자의 처지를 마치 감상자가 죽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착각을 유발시키고자 하였다. 선택지의 구성 방법은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현대운문의 <보기>문항 정답 선택지를 참고하였다.

- ①, ③, ④ <보기>에 따르면 문학 작품의 감상자는 죽음이 가진 비가역적인 특징 때문에 직접 느끼기 어려운 죽음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죽음을 내면화하여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 ⑤ <보기>에 따르면 감상자가 문학 작품 속 죽음을 통해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죽음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죽음을 내면화하여야 한다.